

# 생활공동체와 가정관리학의 과제

차 성 란(대전대 교수)

## I. 서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밑으로 낮아졌다는 기사,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이보다 국민행복이 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인 것 같다. 삶의 질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량을 대신하는 대안적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NEF 재단에서 측정한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한국이 102위, 2009년도에는 68위로 나타났으며(연합뉴스, 2009.7.6), 2012년도에는 34개 OECD 국가들 중 행복지표인 BLI(Better Life Index)가 32위로 거의 최하위라는 소식, 그리고 올 2013년도에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10점 기준 6.267점으로 156개국 중 41위라는 기사(데일리안, 2013.9.10) 등 매년 우리나라의 행복순위가 보도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국정지표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 정부의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였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계화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천명하며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이라는 단어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라도 하듯 도처에 국민행복이 난무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분야의 국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행복추진단,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를 이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행복주택, 새로 시작되는 모든 정부 사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서적, 광고, 콘텐츠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행복산업(탁석산, 2013), 즉 행복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행복을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성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기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과거 성장지향의 삶에 대한 반성의 결과일 수 있다. 또는 그동안 생존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보니 이제 생존 그 이상의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핍가치에서 존재가치로 사회전체적인 욕구의 상향 이동인 것이다. 어쨌든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제발전의 속도와 양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이루어냈지만 구성원들이 살아내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 삶의 지향, 삶의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행복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양한 실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가 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시금 행복지표로 돌아가 보면,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BLI (Better Life Index)는 주거환경,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가정균형의 11개 영역으로 구분, 측정된다. 이 중 공동체는 지지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공동체 항목에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였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친인척, 이웃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1년 79.8%, 2012년 81%에서 2013년 77%로 줄었다. OECD 평균이 90%인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www.oecdbetterlifeindex.org).

논의를 가족으로 좁혀보자. 가족은 가족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보편적 형태는 아니었지만 전통사회의 확대가족은 직업적 이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핵가족 형태로 구조적 변화를 꾀했다. 교통의 발달로 직업선택과 학교선택 범위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들은 분거가족, 기러기가족의 거주형태로 반응했다.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젊은 연령층에 자리 잡으면서 결혼 전에 거주를 분리하는 미혼독신가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삼자면 점유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아직 큰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 가족이 주거공동체 형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사례로서 성미산 마을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일명 ‘소행주’가 대표적이며, 부산 대연동에서 대안학교 부모들이 ‘일오집’을 건축하는 후속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지향의 삶이 등장하고 있는 것 역시 가족들이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가정체계가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관리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가정을 둘러싼 근접환경, 광역환경이 가정체계의 새로운 균형을 요구할 만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가족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마치 정반합에 따른 변화처럼 반복되고 있다. 인간생활의 물적 기반이 되는 사회의 산업구조가 자급자족 형태에서, 1차 농업경제, 2차 공업경제, 3차 서비스산업 경제로 변이되었고, 가족은 가족원들의 삶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장하거나 좀 더 나은 삶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규모와 구조,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상호 대응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학은 가족과 가족생활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가족 구조, 가족형태, 가족원들의 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가족원들의 생활이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함에 따라 변화해간다면, 가정학의 학문적 연구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야 하며, 그것이 가정학이 갖는 본질적 특성이다. 가정관리학은 물론 가정학의 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의, 식, 주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가정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가정관리는 가치, 목표, 표준에 의해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다(임정빈 외, 1994). 가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가족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치와 목표는 가정관리의 방향을 규정짓는 가장 첫 출발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단지 외현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개별 가정의 자원관리의 기준으로서 가치를 다루는 가정관리학은 마땅히 가치의 변화로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학문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학은 ‘환경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관리 이론은 기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므로 관리이론은 행동을 위한 지식 체계이며 또한 혁신을 위한 이론체계이다. 공동체 회복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관리학은 첫째, 사회에 적응하는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족 및 개인의 행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둘째, 연구결과가 가정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가족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문숙재, 1981).

그렇다면 가정관리학은 현재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생활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공동체적 생활방식의 실천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가정관리학이 학문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생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동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가정 외부환경의 변화로서 지자체의 관련 정책 시행 등을 살펴 보며,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가정관리학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공동체와 생활공동체

### 1.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는 영어의 *community*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다. 공동체는 *community*의 또 다른 번역어 지역사회에서 개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이 복잡, 다단해지고, 기술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나타났고,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도 크게 확장되었다.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에 준거해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가 공유되며, 유대를 지니는 집단’에 대해 공동체라는 명칭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가족공동체에서부터 마을공동체, 민족공동체, 심지어는 지구공동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사회적, 정서적 유대가 이루어지는 1차적 지역사회에서 출발한다. Hillery (1955)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지리적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연대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지리적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동체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활동이다. 공동의 연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정서적 특성이며 미래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형은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 사이에 상호부조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정서적 유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1차적 지역사회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는 공동체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공동체를 제외하더라도 지리적 공간의 공유가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다.

오늘날 공동체는 열린 개념이자 복합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는 구체적인 지역 단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을 함께하는 집단 이데올로기나 구성원이 공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동체는 명사로서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의 집단 속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형용사적 의미(방영준, 2011)로서의 공동체가 있다.

명사로서의 공동체는 공동체 발생의 배경을 기준으로 종교적 공동체, 사회주의 공동체, 심리학적 사회비판에 기반을 둔 공동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공동체 유형들은 나타난 시기나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 종교적 공동체로는 셰이커 공동체(The Shakers), 하모니 공동체(The Harmony), 베다니공동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면서 공동식사, 공동노동과 같이 생활의 공동화가 이루어진다(류경희, 김순옥, 2000). 사회주의 공동체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문제나 성적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심리학적 사회비판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고립, 인간 분열을 비판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협동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류경희 외, 2000). 이들 공동체는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나 이유가 다르지만 ‘거주, 생산, 소비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공동체’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공동체로서 신앙촌과 경남 산청 민들레마을, 함양 두레마을, 화성 산안마을과 같은 생태공동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용사로서의 공동체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지니는’, 즉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집단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 이해된다. 때문에 공동생활 집단을 일컫는 공동체가 실천적 공동체라면 삶의 방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는 실천성과 함께 이념적이며, 추상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하나의 특정한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동체적이라는 합성어가 그것을 대변해준다. 공동체는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유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체가 구성된 간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하나의 유형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 유형을 공동체적이라는 조어(造語)로서 설명하려고 한다.

많은 연구에서 공동체의 개념에는 이상의 세 가지 요소 이외에 조직의 운영원리 기준이 추가된다. 공동체에는 협동, 연대, 수평적 의사소통, 직접 참여(최숙자, 2003) 등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적용원칙 등이 요구된다. 때문에 형용사로서의 공동체는 곧 ‘공동체 가치를 지니는’ 또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으로 이해되곤 한다. 공동체는 개인주의나 가족중심주의를 탈피해 나와 타인, 나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소비자와 생산자, 근로자와 자본가, 세대와 세대, 나아가 전지구의 환경까지도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간존중과 평등의 가치로 확장된 개념이다.

박호성(2009)은 공동체론의 프롤로그에서 “휴머니즘에 뿌리내린 문화적 동질성,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정치적 동등성, 자연과의 교감을 지향하는 자연적 동화성”과 같은 가치지향이 공동체적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특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사회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공동목표를 가질 수 있다. 즉 공동체는 가치의 공유,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라는 특성을 갖는다.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유대가 형성되며, 그러한 작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공동체일 수 있다.

공동체 형성의 근원적 요인을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는 수단적 공동체와 표현적 공동체(차성관, 2011 미간행)로 구분할 수 있다. 수단적 공동체는 홍수, 가뭄,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다른 부족이나 국가의 적과 같은 타 인간집단으로부터의 생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발생적이며 필수적인 공동체이다. 외부사회의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이다. 자연재해나 다른 인간집단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집단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이 보존된다. 표현적 공동체는 공통된 관심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표출하기 위한 또는 표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이다.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함께 하거나 생태환경 보존, 교육철학, 계층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에 관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외부압력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 또는 동료와의 동조를 위해 결성되는 공동체이다. 수단적 공동체가 지리적 공간의 공유를 조건으로 한다면 표현적 공동체는 공간의 공유가 필수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인간 삶의 방식인 문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또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운동적 성격이 짙다. ‘미래지향적 비전의 제시’(박호성, 2009), 비전에 다가가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갖게 된다.

## 2. 공동체에 담겨진 가치

전통사회의 수단적 공동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성원간 상호부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공동체의 범주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주민들로 제한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상호부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해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표현적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범주가 지역사회에서부터 국가, 전지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생존의 문제보다는 사회 수준에서의 문제인식을 토대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것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 활동의 목표에 합의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려는 방법을 사용한다. 요소들이 집합되어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된 체계가 발휘할 수 있는 역동성의 강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공동체의 가치에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려는 공동체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적 자유에 의한 사회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생활, 집단 이익, 공동선 등이 지켜질 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며, 이러한 도덕적 사회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Taylor, 1995; 한도현 외, 2004에서 재인용). 공동체적 삶은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윤리적 차원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방영준, 2011)은 바로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공선이라는 목표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체가 갖는 유대적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공동체는 배타적 성향을 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내부만의 강한 유대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경계는 우리와 타자, ‘우리 동지와 적’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는 더 이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 즉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구현이 목표인지를 구성원들이 항상 인식하고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 가치 역시 사회의 다양한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나 근거에 깔려있는 공동체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가치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 가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체 가치에 담겨져 있는 ‘함께’의 가치는 강요로서 실천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생활공동체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생활공동체라는 단어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1992)인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부들이 중심이 되는 생협운동 참가자들이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생협운동 외에 농촌지역의 두레나 품앗이, 공동탁아, 심지어 도시의 빈민운동까지도 넓은 의미의 생활공동체 운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사라지면서 또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자발적 거주공동체가 생겨나면서 확산된 가족 개념으로서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장임다혜, 2007). 장애인생활공동체, 새터민청소년생활공동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촌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공동체 연구(이진숙, 2010)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협의의 생활공동체 개념도 사용된다. 비혈연적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거주공간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를 일컫는다. 독립적인 가족기능 수행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독거노인, 미성년자를 위한 대안적 형태의 생활공동체이다.

대안적 가족의 형태로서 협동, 형제애, 평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며, 친밀한 우정과 물질적 자원을 함께 나누며 조화롭고 협동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생활공동체(코뮌, Commune)를 공동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키브츠와 같은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장정순, 1986). 하지만 이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유형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지향하는 자발적 공동체와는 거리가 있다.

순천시에서는 2013년 4월 생활공동체지원센터라는 명칭의 기구를 설립하고, 마을자원조사 및 기획,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 활동가 육성 등을 센터 사업으로 명시하였다(<http://cafe.daum.net/s-community/>). 타 지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실천에 바탕을 두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활공동체지원으로 명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동체와 생활공동체는 문화와 생활문화의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aylor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나 가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특성,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박명희 등, 2003)로서 의, 식, 주, 가족, 소비, 여가생활문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계선자 외, 2009). 생활문화는 문화 중에서도 가족원들의 일상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간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유대감의 구성요소로 정의한다면

생활공동체는 가족원들의 일상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 추구를 위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 유대감을 갖는 구성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동체의 유형으로는 돌봄공동체, 교육공동체, 소비공동체, 거주공동체, 생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생활공동체는 공동체의 하위범주로서 두 경우 모두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생활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Ⅲ. 공동체의 해체와 복구

#### 1. 공동체 해체

효율성을 중시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느린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가시적 성과가 파악되지 않는 공동체가 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가? 우선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공동체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왜 사라진 이유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과도한 ‘인간 이성 의존성’이 공동체 해체를 야기했다고 본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품앗이, 계, 두레 등 공동체가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수단적 공동체 형태를 유지해 온 것이다.

서구 사회는 어떠한가? 공동체 해체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몽주의의 탄생이 시대를 가르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었다.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이전 시대는 신에 의한 인간 삶의 지배, 이후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로 사상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계몽주의 이전 인간의 삶은 절대적인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겨졌다면, 이후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이성에 기초한 과학의 발달과 삶을 향한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시대적 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다는 시대적 사상이 사회적 가치로 보편화되고 여기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결합되면서 서구사회의 물질적 풍요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책임주의는 개인주의를 낳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보다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타인을 이겨야 하는 ‘긴장의 일상화’가 현대인의 전형적 삶의 방식으로 견고해진 것이다.

우리는 해방, 6.25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를 거치는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서구 가치를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유일한 정답으로 여겨왔다. 서구식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결과 생산성,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삶이 우리에게 내면화된 삶으로 정착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만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우리 사회가 명백한 산업사회의 특징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 고유의 공동체 가치의 뿌리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과지향의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기업친화’, ‘시장친화’가 정부의 정책기조로 표방되었다.

생존을 위한 수단적 공동체 형태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적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서구 사회의 영향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가지, 서구 사회의 전통인 계몽주의가 낳은 ‘자기 책임주의’, 그에 따른 ‘개인주의’ 그리고 이어지는 ‘경쟁의 내면화’(강수돌, 2009)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해체를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 2. 공동체 회복의 출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1980년대를 즈음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운동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운동은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공동육아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모태는 공단과 빈민촌에서 방치되던 어린아이들에게도 돌봄과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야학과 탁아운동을 하던 대학생들 모임인 ‘해송어린이 걱정모임’이다. 이것이 1980년 ‘해송 유아원’, 1984년 ‘해송아기둥지’, 1990년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공동육아회’를 거쳐, 1994년도에는 신촌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정병호, 1994)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전국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은 73개로 확대되었다.

협동조합인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참여하는 부모들 중에는 공동체 가치보다는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기적 동기를 가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공동육아 참여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실망감, 치맛바람과 같은 엄마들의 이기적 행동, 경직된 수업방식 등을 탈피하려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의지(차성란, 2010b), 단지 보육책임자로서의 부모역할을 넘어서 자녀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하며, 자녀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사회적 욕구를 갖는다. 즉 그들은 공동체 문화에 대한 지향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 운동 역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지역화폐는 캐나다의 코목스밸리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곤란을 겪게 되자 마이클린턴이 지역에서 발행, 유통되는 화폐를 발행한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통화 없이도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교환을 가능케 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지역화폐 운동이 시작되었다. 98년 당시 우리는 IMF 체제에 들어서게 되었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가계경제 사정의 악화는 대안적 경제로서 지역화폐 운동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사회환경이었다(천경희, 2006). 2000년도에 한밭레츠는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역시 2000년도에 생긴 송파 품앗이는 송파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IMF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0년 경에 생겨난 많은 지역화폐 조직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을 즈음하여 지역화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역화폐는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 하에서 대안화폐제도를 이용하여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지역공동체 운동(김현옥, 2008)으로 불리워지며 때문에 지역화폐 대신 공동체화폐(천경희, 2006)라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한다.

둘째, 관주도의 일방적 정책집행이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대안으로 거버넌스,

주민자치가 등장하였다.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며, 또한 주민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나타난다.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0)는 마을만들기를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곧 공동체운동이라는 개념정의의 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한 유형으로서 가족친화마을의 이념은 통합, 살림, 그리고 공동체성으로 제시(차성란, 2010a)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을만들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시작 시기나 사업으로서의 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도시의 경우 마을만들기는 정부가 90년대 초반부터 주도해 온 하향식 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YMCA, 도시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관 협력형태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재래시장 활성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조성, 아파트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시켜 왔다. 농촌지역은 2002년경부터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을 계기로 하여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참여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양진영, 2007). 거주환경이나 소득수준의 지역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갖는 공통점은 마을만들기가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원활동가 또는 자원활동조직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자원활동가나 자원활동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참여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 3. 최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 사회는 다시금 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환경이 과거와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공동체 그대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근대를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과정이라 본다면 이제 근대적 특성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기획으로 공동체 회복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방영준, 2011). 최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자체 단위에서의 노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로 민간이 주축이 되는 지역화폐 운동 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의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15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하였다. 토대마련,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총 1,34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975곳과 마을활동가 3,18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찾아가는 마을강좌 교육, 모임형성, 실행, 마을계획수립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보도자료, 2013.7.29). 그동안은 지역의 문제를 관이 분석하고, 해결을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이 이루어져왔다면, 이제 주민이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적 방식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표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번호	구분	사업현황	예산액
1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4개 사업	12억원
2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만들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731억원
3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만들기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	72억원
4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등 29개 사업	430억원
5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직거래 장터 운영 등 3개 사업	95억원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13.7.29)

서울시의 또 다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e-품앗이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 나눔 문화의 확산,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며 서울 e-품앗이 사업을 개시하였다. 노원과 양천 두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2011년 10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서울시 보도자료, 2010).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안에 서울품앗이센터를 설치하고 품앗이 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오픈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2013년 11월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구를 비롯한 15개구에 1개의 품앗이씩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구 단위내 각 지역품앗이는 독립적인 품앗이 명칭과 상이한 지역 화폐명을 사용하고 있어 시단위 품앗이로서의 품교환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서 발행되는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는 점, 지역의 소규모 품앗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체계적 지원을 예상할 수 있는 품앗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2013년 2월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에서는 1천개의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13년도에 226개 대전형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마을 일꾼 발굴 육성,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 규범성, 연대감, 사적 연결망 등은 비교적 높지만 공적 연결망과 시민 참여,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는 낮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 IV. 생활공동체의 의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현대인들의 갈망은 삶의 질이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생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또는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보면,

첫째,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 가정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둘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끌어 가는 주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은 행복의 자기 기준 설정과 실천이 가능함으로써 재미있는 삶,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참여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만족을 제공한다. 참여자들 사이의 만남,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으로 해서, 외로움, 고독이 해소되고, 활동 참여를 통한 성취감, 나아가 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자기계발이 이루어진다.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계형성 및 유지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잠재된 능력이 발휘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프로젝트나 기획 작업을 통해 다양한 업무능력이 개발, 향상될 수 있다.

다섯째, 생태적 생활양식을 통해 환경친화적 가치를 실현한다. 마을 단위로 구성되는 생태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을 하는 공동체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 한밭레츠의 회원들은 재활용, 재사용의 생활화,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신중한 구매 등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생활(천경희 외, 2012)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국 주부들의 생활협동조합형 공동체는 파괴된 환경에 대해 위기를 느끼는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공동체 지향의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세대가 공유하는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여섯째,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독립적 가계경제관리가 가능하다. 공동체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생산, 자원재활용, 자원교환 등을 실천함으로써 시장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이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자본가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경제 범주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즉 시장경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계경제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활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수용되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OECD는 다문화사회통합을 ‘다문화구성원의 공동체로의 편입’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노년기가족, 분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특정 가족으로 구분되지 않고, 건강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들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통합 상태에

서 구성원들은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예측할 수 없는 생활요구와 사건에 대해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는 가족기능이 일시적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가족체계 불균형 상태에서 가족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소비공동체, 경제공동체의 특징을 지니는 지역화폐 공동체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복지에산을 배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적 기구의 행정능력이 갖는 경직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복지수혜의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개별가정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수혜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수혜를 받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자격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생활환경에 처해있는 가족들이 자발적 참여로 생활공동체의 기능에 힘입어 가족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함께 자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된다. 주민들의 바램과 지역에서의 문제들을 자신들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 참여자들은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간다(최숙자, 2003). 성미산 마을의 경우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출발하였지만 대안학교, 동네카페, 동네부엌, 생협, 지역방송국 등을 통해 축적된 주민역량은 이제 노인돌봄도 마을에서 해결하는 돌봄두레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계층적 불평등이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될 수 있다. 국가는 계층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지만, 빈부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중산층 귀속의식은 1990년 75.4%, 2000년 71.7%, 2010년 67.5%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 품은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교환가치가 정해진다. 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품의 가격은 얼마든지 협상될 수 있다. 국가통화를 기준으로 빈곤한 가게라 하더라도 지역화폐 공동체를 통해 가족요구를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 빈곤가정의 소득 및 자산부족에 따른 제약은 감소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낮아질 것이다.

둘째, 훌륭한 인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경쟁적 입시교육으로 인성이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보다는 성적 올리가 목표가 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의 교육제도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좋은 인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 집단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습적 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증대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의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

상호교환의 규범과 신뢰를 토대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Bourdieu, 1986). 지역화폐는 국가화폐가 개입되지 않지만 공동체 내에서 주고, 받음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며, 지역화폐와 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신용사회 구축(천경희 외, 2012). 나아가 국가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

## V. 생활공동체와 가정관리학의 과제

### 1. 가정관리학 영역에서의 생활공동체 관련 연구 실태

생활공동체는 가족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대안으로 나타난 새로운 생활양식이다. 가정관리학은 가족과 가족에 의한 욕구충족의 관리활동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변화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 생활공동체에 대해 가정관리학의 이론적 연구, 실천적 지원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선 이론적 토대로서 199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가정관리학회지에 게재된 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 관련 연구를 소주제별로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공동체가치에 관한 논문이 2건, 대안가족으로서의 가족공동체 1건, 공동육아 2건, 거주 및 지역공동체가 가장 많은 18건, 마을만들기 2건, 주민참여 4건 등 총 29건이었다. 이 중 거주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18건의 연구는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공동체적 삶을 담아내는 주택건축의 설계나 거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논문수를 제외하면 지난 20여년 이상 동안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고작 11편에 그치고 있다. 공동체는 기존의 사회문제나 삶의 여건을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다. 때문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 즉 공동체 운동으로 일컬어진다. 가정관리학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가족원들이 새로운 대안적 가치로서 공동체가치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표준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를 축적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2> 가정관리학회지에 게재된 공동체 관련 연구(1990-2013)

주제	년도	논문제목	건수
공동체 의식	1999	- 부모의 공동체규범과 가정교육 부모의 공동체규범과 가정교육	2건
	2002	-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가정건전도 공동체적 가정교육의 실행과 가정건전도	
대안 가족	1992	-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을 중심으로	1건
공동 육아	2009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포함사업 실천사례	2건
	2013	-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거주 및 지역 공동체	2001	-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18건
		-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2002	-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2003	-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 중년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의사 분석	
		-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거주자의 지역공동체의식과 근린활동 : 거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2004	-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거주자의 지역공동체의식과 근린활동 -거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 :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	
		-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자 유형에 따른 개발과 관리 특성 선호경향 : 개발·거주, 비용을 중심으로	
	2005	-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프랭클린(Franklin)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예비노인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분석	
		-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선호개발유형에 따른 주거사용 특성	
		-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접근성 평가	
2011	-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2012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기준개선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기준 개선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마을 만들기	2010	-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2건
	2012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주민 참여	2009	- 코하우징 계획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사례 -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4건
	2010	- 스웨덴 웨르셀 생태마을의 주민참여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2011	- 커뮤니티 활동의 주민참여에 대한 광주시민 의식 조사	
		- 코하우징 계획 시 주민참여 워크숍 프로세스 분석연구	
전체			29건

가정관리학회지에 수록된 관련 연구 이외에 대학에서 ‘공동체’와 연관될 수 있는 교과목의 교과내용을 살펴보았다. 공동체 가치나 삶의 양식을 다룰 수 있는 교과 영역은 기초이론 과목으로서 가정관리학, 건강가정과 관련된 건강가정론 정도일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양식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연구 부진은 가정관리학 이론을 담고 있는 대학 교재의 구성내용에서도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대학교재로 사용되는 가정관리학의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이론 및 생태체계이론, 체계의 투입, 과정, 산출 단계별 요소, 인적, 물적 자원 관리, 가정유형 및 상황에 따른 관리 등 크게 네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동체와 연관된 부분은 최대한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도 가정관리 동기요소인 가치 부분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념정의 및 가치의 역할, 가치의 유형 그리고 가치지향성이 포함된다(임정빈 외, 1994). 공동체 가치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 중 가치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가정에서 가정관리 동기요소로서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여 가정관리행동의 방향을 결정시킬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가정론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요소 중 하나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공동체 가치나 삶의 양식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 물적 토대, 가족관계, 가정역할, 사회와의 관계, 문화(이선형 외, 2009)의 5개 요소에 대한 언급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 2. 가정관리학의 생활공동체 관련 당면 과제

생활공동체는 현 사회의 삶이 지향해야 할 대안으로서의 가치이자, 철학이다. 가족원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양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먼저 공동체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치는 이후의 가정관리행동 변화를 이끄는 가정관리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껏 가정관리학에서는 가정관리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의 첫 단계로서 가치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왔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보편적 가치와 특수 가치와 같은 가치유형의 구분만으로는 가정관리의 실천적 도구로서 가정생활에서 가치를 관리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실천적 도구로서 가치에 대한 연구는 Kluckhohn과 Strodtbeck의 가치지향성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들은 인간본성에 대한 지향성, 인간-자연지향성, 시간지향성, 활동지향성, 관계지향성의 5개 유형으로 가치지향성을 구분 제시하였다. 게다가 이들의 연구는 서구 문화에 토대를 둔 가치지향성 연구이다. 가치는 특정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정신적 유산이다. 비록 서구의 가치와 문물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것이 이미 상당기간 지났지만, 동양문화에 기초한 가치를 배제하고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여, 우리의 가족과 가족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정관리학 영역에서 공동체 가치에 대한 연구와 그에 기초한 대학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생활공동체와 관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 가족품앗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품앗이 사업은 품앗이가 갖고 있는 상호부조라는 특성상 공동체 가치가 내재해 있다. 가족품앗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참여자들이 공동체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담당자는 공동체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가족품앗이 참여자 대상 교육과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를 비롯하여 센터 종사자들이 가족품앗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공동체적 삶의 양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장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 아파트공동체,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들이 민에서 자생적으로, 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생협운동에서는 여성학 전공자들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공동체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앞장서서 공동체 운동을 이끌고 있다. ‘생활’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관리학의 관점에서 가정학 전공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앞으로 가정관리학에서 맡아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여, 가치의 기초로서 삶의 철학, 행복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관리학의 상위 수준인 가정학의 학문적 구조는 분명 가정철학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서구문명이 자리잡고, 서양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적 가치도 아직은 남아있으며,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도 있다. 지금껏 서양이 세계의 중심이자 보편적 문화로 여기는 편중된 세계관이 지배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여 삶의 철학, 행복철학을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하나의 과목으로 학부과정에서라면 적어도 한 장으로 다루어져 가정학이 담당해야 할 가정생활의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셋째,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는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 삶과 직결된 일상적인 체험 세계이기도 하다(박호성, 2009). 공동체 가치가 구체화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 공동체 형성 및 유지, 발전을 가능케 할 실천 능력에 대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가정문화 운동으로서 생활공동체 운동을 이끌어 갈 활동가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체’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terminal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족원들의 공동체 참여 역량, 즉 자주역량, 자치역량 강화하는 서포터로서의 역할과 마치 창업보육센터처럼 가족원들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생활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로서 관련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생활공동체는 생활영역에 따라 돌봄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 생태공동체, 거주공동체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돌봄공동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이나 가족품앗이와 연관지어 고려해 볼 수 있는 공동체 유형이다. 또한 공동육아, 공동육아어린이집, 마을공동체에서 지역주민의 돌봄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돌봄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공동체는 가족들의 돌봄요구와 연장선상에서 운영될 수 있다. 경제공동체는 생협, 품앗이,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유형들이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

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참여자들의 경험과 경험에 따른 생활문화의 변화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수돌(2009).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 서울:문라이브러리.
- 계선자 · 이연숙 · 이정우 · 양숙희 · 박미석 · 최재순 · 강기정 · 김연화 · 박남희 · 이미선 · 이영호 · 임춘희 · 차성란 · 최미경(2009). 가족과 문화. 서울:신정.
- 김현옥(2008). 지역화폐운동에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송과품앗이와 한발레츠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 2(1), 85-107.
- 데일리안(2013.9.10). 세계행복지수 1위는 덴마크...한국은 몇 위?.
- 류경희 · 김순옥(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 문숙재(1981).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 34차 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지, 19(4), 115-121.
- 박명희 외 9인(2003). 한국의 생활문화. 경기: 교문사.
- 박호성(2009). 공동체론. 효형출판.
- 방영준(2011). 공동체 · 생명 · 가치: 우리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개미.
- 서울시(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현황, 한눈에 알아보세요. 보도자료(2013.7.29).
- 양진영(2007).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 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2009.7.6). 국가별 행복지수(HPI) 순위.
- 이선형 · 임춘희(2009). 건강가정론. 서울: 학지사.
- 이진숙(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1994). 서울:학지사.
- 장임다혜(2007). 혈통 중심에서 생활공동체로의 가족 개념 변화에 대한 모색-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공익과 인권, 4(1), 101-124.
- 장정순(1986). 생활공동체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병호(1994). 대안교육의 길을 찾아서: 야학에서 공동육아까지.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서울: 또한나의 문화. 215-243.
- 차성란(2010a).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_\_\_\_\_(2010b).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 사업 실천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189-201.
- \_\_\_\_\_(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 운영(미간행).
- 천경희(2006). 공동체화폐운동의 소비자주의적 함의 연구: 한발레츠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147-166.
- 최숙자(2003).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탁석산(2013). 행복스트레스. 서울:창비.  
한국여성개발원(1992).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지방정부학회(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69-89.  
한도현 · 김동노 · 양현아 · 허라금 · 최진덕(2004). 유교의 현대적 해석과 미래적 전망. 청계.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NY:Greenwood Press.  
Taylor, Charles(1995).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통계청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http://cafe.daum.net/s-community/>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